

날짜: 5786 년, 11 월 2 일 (2026 년 1 월 20 일)

토라 문: Bo (이리 오라)

주제: 열국의 "생명력의 탈취" vs. "회복된 삶의 의미"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생명을 통치하는 권력이 그들에게 속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토라, 예언서, 그리고 갱신서 곧, 예호슈아 나사렛의 도가 여호와께서 흠어진 이스라엘의 양들을 토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모으시는 마쉬아흐이심을 증거하는 새 언약 증거의 기록서는 그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포입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다!" 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본문인 쉘물 (출애굽기) 10:1-13:16, 예레미야(예레미야) 46:13-28, 그리고 요하난의 복음서 19:31-37 을 함께 정독하면 모든 구절들의 말씀이 하나로 연합되며 내적인 도덕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 도덕적인 맥의 흐름은 거짓된 권력을 폭로하고, 압제를 심판하며, 언약적 기억을 통해 희망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물려주시는 전통은 우리에게 이 흐름을 먼 역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어서 전해지는 살아 있는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이 극적인 상황들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의 해방이 어느 순간의 갑작스러운 탈출이 아니라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여정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레브(לב) 마음;심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도덕적 방향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가 지닌 권력이 추락됨을 기록한 쉘물의 비극은 그의 "무지"가 아니라 "거부" 였습니다. 그는 외적인 징조들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아의 통제권을 여호와의 소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열 재앙들의 경도가 점차로 심해지는 것은 여호와 엘로힘의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리에 대한 내면의 저항이 외적 재앙의 변화의 대가를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이 전개되는 드라마의 목적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과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내 표증들(אֲתֹמֹתַי; My signs)을 말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출. 10:2)

여호와의 구원은 후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자유"가 구전으로, 기억하며, 그리고 증거(תִּדְבָר 에둠; edut)이 될 때에만 살아남는다는 핵심을 가르칩니다. 메길타와 미드라쉬 라바는 재앙들이 "미다 케네게드 미다"(מִדָּה כִּנְגַד מִדָּה; middah keneged middah; 공정한 측량), 즉 막연하고 눈먼 처벌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구조를 드러내고 그 가치를 이어 나가기 위하여 내려진 댓가였음을 가르칩니다.

이 공정하고 면밀한 측면의 창조주의 속성은 피조물의 세계에 있어서 오히려 어둠(אֲדָמָה 호세크)조차 스승이 되도록 전환시켜줍니다.

한 시대의 사회나 개인이 창조주 선택하신 험악한 좁은 길에서 부어주시는 더 숭고한 빛을 거부하고, 그 자체적 이익만을 주장하는 빛만을 숭배할 때, 고인물처럼 되어 결국 그 안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유월절(נוֹסֵף פֶּסַח)이 있습니다. 자유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며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혼돈의 탈출이 아니라, 질서의 바른 정립입니다. 피(דם, דָּם), 계명(미츠바, מִצְוָה), 그리고 기억(직카론, זִכָּרוֹן)이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와 토라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출.12:46)

라시는 탈무드를 인용하여 “온전함”의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찢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도망자가 아니라, 존엄과 온전함(셀레무트, טוֹמְלֵשׁ)을 회복한 백성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람반은 이 명령이 자유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얻게 되는 구원의 완전함은 단순히 머리속에서나 심장에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경말씀에서의 “자유” 는 육신을 통한 훈련(아보다, אֲבוּדָה)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련한 향수로 심리적 세계에서만 머무는 실존적이지 않고 영지주의로 변질되어 자리잡습니다. (Cf. 빌립보서 2:12) 수세기 후,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미쯔라임을 바라보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미쯔라임(이집트)은 “압제” (메이짜르) 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세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판에 직면합니다. 선지자는 이집트의 몰락을 선포하지만, 날카로운 정직함으로 묻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느냐?” (예레미야 46:11)

열방의 영이 주도하는 제국은 항상 회개(테슈바, תְּשׁוּבָה)를 요구하지 않고 순간적인 치료법을 모색합니다. 내면의 자아의 내려놓고 순종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영적 승화를 선택하기 대신 미봉책을 우선 찾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심판 후에는 위로가 따릅니다: “내 종 야아콥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46:27).

역사는 똑같은 교훈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열방 제국은 힘으로 흥하지만 때가 차면 스스로를 높은 오만함으로 몰락하고, 여호와와 모세와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그에게 순복하는 자녀들의 기억하는 인지와 겸비한 심령 가운데 지속됩니다.

요한나의 복음 19장 31-37 절은 이러한 깊은 성경적인 멜로디의 패턴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성문토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성문토라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실증의 메아리로서 말입니다. 요한나의 복음서 19:36 절은 의도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우연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뼈가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어린양을 떠올리게 하며 그 꺾이지 않은 뼈는 온전한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탈무드는 뼈를 꺾는 것이 제물을 무효화한다는 구전을 기록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파편화는 의미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또한 피와 증언을 기록합니다.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느니라"(요한복음 19:34-35). 출애굽기에서 피는 마법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함을 받는 소속을 나타내는 표징(오트, תיא)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표적이 될지라"(출애굽기 12:13).

사람의 여호와 말씀의 순종은 그의 네뿔쉬에서 향기를 품어 내게 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같은 기름이 아니라, 그 계명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아로마, 향기입니다. 요한나의 거룩한 기록은 로마 제국의 권력 제국은 육체를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삶의 목적"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조용히 메아리 울려줍니다. 이 모든 기록 된 성경말씀들을 통해 한 가지 진리가 영속하며 빛을 방산합니다.

토라의 명령은 여전히 빛이며 삶의 중심축입니다. "이것이 네 손의 표징과 네 눈 사이의 기념표가 되리라"(출애굽기 13:9).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야드, ת)과 우리가 "보는 방식"(베인 에이나임, מַעַיְנֵינוּ)을 형성해야 합니다. 전두엽의 기억이 여호와 엘로힘의 자녀들의 행동과 비전을 지배할 때, 자유는 살아 역사합니다.

파라오, 이집트, 그리고 로마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닌, 거짓 권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영의 정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순수 준행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그를 충성하는 종,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에 창조주 여호와와 말씀을 만나서 지켜 올려드리는 순종의 행실들은 행위록의 기록으로써 월삭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shalom.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5: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엘로힘(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호와]엘로힘(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빌. 2:12-15